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지역사회 봉사

주간 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빌립보서 1:21)

발행처: 대한예수교 총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김은호 편집국장: 조선근

'97 해외 단기선교 훈련 막을라

7~9일간, 인도네시아 · 이스라엘 · 홍콩 · 터키
7월 6일 저녁 찬양예배 시간에 파송식 가질 계획

학 교의 방학 및 직장인의 휴가철을 맞아 해외 단기선교 훈련이 일제히 실시된다.

1993년도에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 한인연합교회(서만수 선교사 시무)에서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를 도와 주면서, 또한 한일청소년지도자대회로 일본을 다녀오면서부터 해외로의 선교적 인식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한국 교회에서도 1994년의 세계선교대회를 한국에서 치르고 매년 '선교 한국' 행사를 치르면서 젊은이들의 해외 단기선교 사역이 급증하고 있다.

선교 개념이 국가에서 종족으로 바뀌면서 12,000여개에 달하는 미전도 종족에 대한 관심과 이들을 한 교회가 한 종족씩 입양하여 전도하려는 운동이 퍼져 나가면서 여름철 해외 단기선교 사역을 통해서 이들과 접촉하여 그 가능성을 찾아보고자 하는 목적에서 관심 있는 교회에서는 교회적으로 이를 적극 지원하여 대학·청년부 회원들을 단기선교 사역으로 파송하고 있다.

또한 교회 밖의 각 선교단체에서 모집하여 실시하는 해외 단기선교 사역에도 개인적으로 참가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우리 교회는 1993년에 인도네시아에 이어 94년도에는 인도네시아, 태국, 95년에는 인도네시아, 일본, 필리핀, 지난



▲ 1996년도 인도네시아 단기선교팀이 예배를 마치고 원주민들과 함께

해 96년에는 인도네시아, 홍콩, 일본, 터키 등을 다녀왔다.

이는 실제 선교 현장에서 선교 대상자들을 만나고 체험하는 것 이상의 교육과 훈련이 없다는 것을 다녀온 사람들은 누구나 느끼는 일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처럼 선교 현장을 한번 다녀온 사람이라면 평생을 선교적 관심 속에 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단기선교 사역도 새로운 차원으로 접어들고 있다. 이제까지의 단기선교 사역이 주로 해외선교사를 중심으로 한 선교지 탐방이나 문화 탐방 내지 선교 세미나의 형식이 주를 이루어 왔다. 물론 그런 형식의 단기선교도 필요하다.

그러나 금년부터 많은 해외 단기선교가 젊은이들이 중심이 되어 미전도종족 입양을 준비하기 위한 정탐훈련의 성격을 띤 것이 많아지고 있다.

금년에는 선교위원회가 주관하여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홍콩 및 터키를 다녀올 예정이다.

선교위원회에서는 97년도 해외 단기 사역을 시작하며 7월 6일(주일), 저녁찬양예배 시간에 단기선교 파송식을 가질 계획이다.

• 인도네시아

7월 28일~8월 4일(7박 8일), 그동안

자카르타 한인연합교회에서 여름성경학교를 도와 주는 것을 주로 했던 것에서 금년에는 의료선교팀을 파송하여 의료 중심의 선교활동을 하며 구제활동, 계몽활동 및 전도활동도 함께 할 예정이다. 단장 손철 장로 외 대원은 6명이다.

• 이스라엘

7월 14일~24일(10박 11일),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김주경 선교사의 안내를 받아 영성훈련과 선교부흥회, 학술대회 등에 참여하게 된다. 지도 이승림 목사 외에 대원 18명이 참가한다.

• 홍콩

7월 12일~19일(7박 8일), 홍콩 우두각 교회(김은태 선교사 시무)를 중심으로 노방전도, 초청전도집회, 축호전도, 삼자교회 및 가정교회 방문 등을 가질 계획이다. 단장 박상준 장로, 지도 김희수 목사 외에 14명의 대원이 함께 하게 된다.

• 터키

8월 15일~23일(8박 9일), 지난해 청년 1부가 갔던 지역을 중심으로 김원호 선교사의 인도 하에 사역을 실시한다.

노방전도, 어린이성경학교, 선교부흥회 등과 함께 불가리아 소피아의 터키 주민을 대상으로 활발한 전도활동을 펼치게 된다. 단장 송환장 장로, 지도 이홍성 목사 외에 14명의 대원이 참여한다.

이와같은 일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선교와 선교지를 바르게 이해하고 그에 따른 선교지 후원, 지원원이 풍성하게 이루어질 때 진정한 선교하는 교회로서의 의미가 살아날 것이다.

.....
홀트 입양가족 모국방문단

12가정 41명이 충현교회 방문

민박을 도와줄 자원봉사자 필요해

7월 5~6일, 그리스도의 사랑 알릴 좋은 기회

홀 트 입양가족 모국방문단 12가정 41명(양부모 포함)이 오는 7월 5일(토) 충현교회를 방문한다. 이는 입양 가족들이 모국을 방문하여 모국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하여 매년 실시되는 프로그램으로 지난 해에도 우리 교회에서 방문단의 일부를 도와주었다.

지난해에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성도들은 그들과 함께 지내고 떠나보내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다고 고백하고 있다.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사랑의 마음으로 해주고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면 그들이 큰 힘을 얻고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느끼기도 했다. 특별히 입양아들에게 한국인이라는 긍지를 심어

주려고 애쓰는 양부모들의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다고 기억하고 있다.

7월 5일(토) 오후에 홀트를 통해 미국으로 입양된 입양아들과 양부모 41명이 다시 충현교회를 방문한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들의 외로움을 함께해 주고 위로해 줄 자원봉사자를 찾고 있다.

자원봉사자가 할 일은 7월 5일(토) 저녁식사와 잠자리 제공, 7월 6일(주일) 아침식사 제공이다. 7월 6일(주일) 아침식사 후 교회에 오면 선교위원회가 나머지 일정을 맡게 된다.

자원봉사 희망자는 영예예배부 김정순 집사(☎ 407-7330)나 선교위원회(☎ 552-8200 교환 357) 앞으로 연락하면 된다.

.....
새벽기도회 본당에서 실시

새벽기도회 후 출근하는 성도들 위해 아침 식사 제공

교 회는 최근 들어 새벽기도회 참석 인원이 날로 늘어나 갈릴리홀이 비좁게 됨으로 지난 6월 25일 새벽부터 본당에서 새벽기도회를 실시하고 있다.

새벽기도회는 그동안 오전 5시 정각에 시작했으나 김성관 목사가 인도하면서부터 오전 4시 40분부터 찬양을 하고 5시에 기도회를 시작하고 있다.

이처럼 새벽기도회 출석인원이 많아지면서 직장인들의 참석도 증가되어 교회에서 새벽기도회를 마치고 직접 출근할 수 있도록 새벽기도회 후 만나홀에서 아침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아침식사 준비를 위한 봉사도 각 부서에서 봉사팀을 구성하여 봉사하고 있다. 7월 15일까지는 안수집사 부부들이 봉사한다.

● 김창인 목사의 이사야서 강해 ●

하나님의 심판

(이사야 1:24-31)

본 문은 하나님이 유다의 타락상을 보시고 심판을 시작하시는 내용입니다.

1.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권세

심판하기 위하여 나타나시는 하나님은 '주 만군의 여호와' 이십니다. '주'는 천지를 창조하신 주인이라는 말씀이고 '만군의 여호와'는 만가지 군대, 즉 땅 위의 만물, 하늘의 천사와 일월성신 등 억만 피조물을 주장하시며 명령을 내리시는 최고 사령관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자'란 전쟁에서 싸워서 한번도 저본 일이 없는 전능하신 분이란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별 수 없다 심판해 버리겠다' 하시며 심판하려고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보니까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2. 심판받는 유다 백성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유다 백성을 '대적'과 '원수'로 취급하여 심판하시겠다고 합니다.

산이 크면 그늘이 큰 것처럼 사랑이 컸으면 따라서 미움도 큼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실 때에는 한없이 크지만 그의 사랑을 끝까지 반역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도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원수로 대하면서 심판하시겠다고 합니다. '원수'로 대하시겠다는 말에는 자비나 용서가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전에는 하나님이 보호자로서 악마가 손대지 못하도록 지켜 주시더니 오늘은 하나님이 원수가 되어 이방의 몽둥이로 치십니다.

3.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방법

(1) 막으십니다

'원수'라는 말은 전에는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던 하나님이 이제는 복받는 길을 가시 울타리로 막으셨다는 말입니다. 복받는 길을 가시 울타리로 막으시고 캄캄한 암흑으로 덮으셔서 좌우를 분별할 수 없게 되어 복을 받겠다고 덤비다가는 더욱 함정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너희 유다를 원수로 취급해서 심판하겠다" 하시니 무서운 말씀입니다.

(2) 때리십니다

첫째로, 질병으로 때리십니다. 둘째로, 전쟁으로 때리십니다. 무서운 병으로 때려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는 원수 나라를 불러서 전쟁으로 때리십니다.

(3) 빼앗으십니다

전에는 하나님이 시은자(施恩者)로서 선지자들을 보내어 말씀도 주시고 성령의 감동도 주시더니 오늘 원수가 되니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빼앗아가십니다.

도적이든 화제로, 천재지변으로 빼앗아가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성공을 원하더라도 실패자가 되고, 행복을 원하더라도 가슴치는 통곡만 남게 됩니다.

4. 심판하시는 순서

(1) 타락한 교회의 지도자들을 심판하십니다

'찌끼를 온전히 청결하여 버리겠다'는 것은 제일 처음 심판의 대상이 교회의 타락한 지도자로서 아주 쓸어버리겠다는 말씀입니다. 목사노릇을 바로 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욕을 돌리고 성도들의 영혼을 범죄케 하고 장로노릇을 바로 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교회에서 말썽꾸러기가 되고 성도들의 믿음에 손해를 끼치던 교회의 지도자들부터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많이 주었던 자에게서 많이 거두십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책임이 중한 만큼 대접도 많이 받겠지만 책임을 못하면 형벌이 더욱 무섭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명을 받을 때에 하나님 앞에 책임이 중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2) 위정자들을 심판하십니다

대통령, 국회의원, 장관 등 위정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백성을 사랑하여 잘 살 수 있는 길로 인도할 책임이 있는데도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악한 백성의 동가죽을 벗기는 못된 짓만 하니 하나님은 이들을 멸망의 비로 쓸어버리십니다.

(3) 패역한 자들입니다

'패역'이란 알고도 거역하는 것입니다. 선인 줄을 알고도 행하지 않고, 악인 줄 알고도 회개하지 않고 멸망할 줄 알고도 고집을 부리는 것입니다.

(4) 하나님을 버린 자들입니다

가릇 유다와 같이 돈 몇 푼에 예수님을 팔아먹고 신원과 신앙을 팔아 먹은 자들이 심판을 당합니다.

(5) 우상을 섬기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5. 심판 때에 의인이 받는 보상과 악인이 받는 심판

(1) 의인이 받는 보상이 어떠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부모님을 대하는 자식의 태도가 나아지고, 하나님의 종을 대하는 성도의 태도가 나아지고, 하나님을 대하는 신자의 생활이 나아져서 매사에 이전보다 나아지는 삶을 살아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시고 후손에게도 복을 물려 주고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① 본래와 같이 회복해 주십니다.

악한 자들이 멸망의 비로 쓸리는 심판을 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의리를 지키기 위하여 고생하던 신실한 성도들을 구별해 내어 하나님은 그들을 처음과 같이 회복해 주십니다.

② 백 배의 복을 주십니다.

회복해 주시고 나서 조금 지나면 하나님이 이자를 붙여서 복을 주시는데 30배, 60배, 100배, 한없이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날 때에 남이 모르던 숨은 선행이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칭찬과 상급을 받게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를 위해 고난을 당하던 자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회복시켜 주시고 나서 '의의 성읍, 신실한 고을'(사 1:26)이라고 칭찬해 주시면서 좋은 것을 모두 주십니다.

그러므로 의를 위하여 고생을 당할 때는 괴롭지만 지내놓고 보면 고생한 것보다 더 많은 유익을 얻게 됩니다. 믿음을 지키려고 고생하던 자들은 하나님이 악한 자들을 멸망시키는 심판의 날에 복을 받을 것인데 땅에서도 한없이 받게 됩니다. 이것이 신실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입니다.

(2) 악인이 받는 심판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에 세력이 있다고 교만하여 뽐내던 자들은 '잇사귀 마른 상수리나무'와 같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잇사귀가 마른다'는 것은 사람이 겉보기에는 살아 있으나 마음 깊이에는 지옥의 불이 활활 타서 얼굴이 숫처럼 새까맣고 생기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범죄하고 남을 괴롭히는 자들은 겉으로는 잘 사는 것처럼 보이나 마음에는 지옥불이 불고 얼굴에는 빛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잇사귀가 마른 나무에 불을 붙이시면 얼마나 잘 붙겠습니까. 잘났다고 뽐내고 세력이 있다고 뽐내고 돈이 많다고 뽐내던 자들이 그때에는 마음에는 지옥불이 불을 뿐만 아니라 천 사람, 만 사람에게 망신을 당하고 고생

을 하다가 마지막에는 지옥불에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사야 1장 전체의 결론

첫째, 사람이 사람노릇을 바로 하지 못하면 짐승만 못해집니다.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모른다면 짐승만도 못한 것입니다. 또 개보다 더 음란하고, 돼지보다 더 욕심이 많고, 곰보다 더 미련을 부리면 짐승만도 못한 사람입니다. 개미는 여름에 겨울을 준비하는데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천국갈 준비를 못한다면 짐승만도 못하다는 책망을 받아 마땅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짐승만 못하다는 말을 듣지 않도록 자신을 검토해 보고 회개해야 하겠습니다.

둘째, 하나님이 칭해 주실 때에 일조도 머뭇거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죄인 중의 괴수이며 못나고 더러워서 망해야 마땅할 나를 칭해 주시는데 끝까지 거절하면 안됩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을 줄 알아야 합니다.

셋째, 이전만 못해지는 우리가 되지 말고 나아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전에는 성경을 읽지 못했지만 이제는 성경을 읽고, 전에는 주일을 범했지만 이제는 주일을 지키고, 전에는 십일조를 잘라 먹었지만 이제는 십일조를 바치면서 전보다 지금이 나아지는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이전만 못했구나" 하시며 원수 취급하여 멸망의 빗자루로 쓸어버리시면 안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모님을 대하는 자식의 태도가 나아지고, 하나님의 종을 대하는 성도의 태도가 나아지고, 하나님을 대하는 신자의 생활이 나아져서 매사에 이전보다 나아지는 삶을 살아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시고 후손에게도 복을 물려 주고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

Today's Message By Rev. Kim, Sung Kwan

김성관 목사의 금주 설교

BELIEVERS OF THESSALONICA

(1 THESSALONIANS 1:1-3)

Paul, Silvanus, and Timothy visited Thessalonica on their second missionary journey. They were forced to end their stay suddenly because of the opposition of the Jews. Paul was concerned about their departure under pressure and about having to leave the church without experienced leadership. He sent Timothy back to Thessalonica to encourage the believers and then to report back on the condition of the church there. When Timothy rejoined Paul and Silvanus his report gave them all cause for praise for the healthy condition of the church.



Their gratefulness and encouragement are expressed in their biblical letter named 1 Thessalonians. It begins, "Paul and Silvanus and Timothy to the church of the Thessalonians in God the Father and the Lord Jesus Christ: Grace to you and peace" (vs. 1). This greeting identifies from whom and to whom the letter is written. It also establishes the Christian lineage of the writers and recipients. Moreover, it contains the wonderful blessing of the grace and peace.

Their commendation to the believers of Thessalonica opens, "We give thanks to God always for all of you, making mention of you in our prayers" (vs. 2). Obviously, the believers of Thessalonica are doing something good because Paul, Silvanus, and Timothy give thanks to God for all of them. They also say that they pray for this church, which indicates that whatever it is, what they are doing is of significant spiritual value.

What kind of things are the Thessalonians doing to deserve such tribute from Paul, Silvanus, and Timothy? They mention, "constantly bearing in mind your work of faith and labor of love and steadfastness of hope in our Lord Jesus Christ in the presence of our God and Father" (vs. 3). This church had three distinct actions that made it so very special. Understanding what each action means and how together they form the life of a believer in Jesus Christ is important for every church and every Christian's spiritual growth.

The first action mentioned is **work of faith**. John clearly defines the meaning of this phrase when he quotes Jesus saying, "This is the work of God, that you believe in Him whom He has sent" (John 6:29). Work of faith is without doubt the physical and mental activities directed toward belief in Jesus Christ. The Thessalonians not only understood God's commandment that we believe in the name of His Son Jesus Christ but also the all importance of this faith with regards to righteousness, justification, peace, and sonship of God (1 John 3:23; Rom. 3:22; 5:1; Gal. 3:26).

Our work of faith is just as important today as it was back then to the Thessalonians. We must always remember that Jesus Christ is our Lord and Savior; and most importantly believe in Him wholeheartedly. The work of faith in every believer is made evident in their life. Just as the Thessalonians' work of faith was visibly present, so too must our work of

데살로니가 교회 신자들

(살전 1:1-3)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그들의 제2차 선교여행 중 데살로니가를 방문하였습니다.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당시의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경험있는 지도자가 세워지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의 극렬한 반대와 핍박 때문에 급히 그곳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후 바울은 신자들을 격려하고 현지 교회의 상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디모데를 다시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내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과 실루아노에게 돌아와 데살로니가 교회가 건재하다는 소식을 보고하였고 그들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감사와 격려는 그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냈던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1절). 이 인사문은 본 서신의 발신자와 수신자가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으며 또한 발신자들과 수신자들의 영적 계보가 어떠한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 은혜와 평강의 놀라운 축복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데살로니가의 신자들을 칭찬하는 내용은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함은"(2절).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신자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볼 때, 그들이 무엇인가를 잘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그들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을 볼 때,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자들이 무언가 영적인 가치가 있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신자들이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기에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그토록 칭찬을 하고 있을까요? 그들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3절)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그토록 특별하게 만든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진 세 가지의 뚜렷한 특징들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특징이 무엇이며 이 세 가지 특징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의 삶을 형성하였는가를 이해하는 것은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성장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신자들의 첫번째 특징은 그들의 믿음의 역사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본문의 뜻을 밝혀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요 6:29). 믿음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한 우리의 육체적이고도 정신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자들은 우리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 칭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화평,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계명들에 관하여 잘 이해하였던 것입니다(요일 3:23; 롬 3:22; 5:1; 갈 3:26).

우리의 믿음의 역사는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신자들에게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이신 것과 우리가 전심으로 주를 믿어야 한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만 합니다. 각 신자들의 믿음의 역사는 각각의 삶을 통하여 명백하게 나타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faith be recognized. The work of faith produces and accomplishes the purposes of Jesus.

The second action that Paul, Silvanus, and Timothy point out in the church of the Thessalonians is their labor of love. Notice that they don't just say love but **labor of love**. We all know that labor means exhausting work. It's apparent that this special attribute is extremely meaningful. Paul elaborates on the core meaning of the supremacy of love by stating, "If I speak with the tongues of men and angels, but do not have love, I have become a noisy gong or a clanging cymbal" (1 Cor. 13:1). No matter if you can speak over 200 languages of the world or even the heavenly language, it matters not if you don't have love. Without love, your voice is nothing but irritating sounds.

Paul continues with this line of thought by taking it one step further, "If I have the gift of prophecy, and know all mysteries and all knowledge; and if I have all faith, so as to remove mountains, but do not have love, I am nothing" (1 Cor. 13:2). Wow! To have kind of power without love and be totally insignificant (a complete zero) shows the omnipotence of having love. And still Paul walks yet another step forward in saying, "And if I give all my possessions to feed the poor, and if I surrender my body to be burned, but do not have love, it profits me nothing" (1 Cor. 13:3). Come on people, this should be a direct hit on the absolute necessity of love in our lives. While faith is important, love is imperative! For without love nothing we do or say means anything.

The last action that Paul, Silvanus, and Timothy refer to is **steadfastness of hope**. Steadfast means unchanging, firm, faithful, and true. They mention that our steadfast hope is to live together with Jesus forever (1 Thes. 5:10). Paul clarifies the meaning of steadfast hope when he says, "Therefore if anyone is in Christ, he is a new creature; the old things passed away; behold, new things have come" (2 Cor. 5:17). We are born again into this living hope because of Jesus' death and resurrection.

The Thessalonians understood the concept of living hope and were able to endure severe persecution. We also must constantly keep in mind that the one who does the work of faith has real hope! The truth is that the world has no hope or even the possibility of hope without Jesus Christ. Our steadfastness of hope is only possible through our work of faith and labor of love in Christ. Through our work of faith and love in Christ we become aware of the amazing grace of eternal life. Because Jesus is the same today, yesterday and always we are able to endure and remain steadfast in our hope until the last day.

The Thessalonian church was blessed to have three people in prayer to God thanking Him for their important service. It's so important that we see and understand this blessing. Their thanksgiving and encouragement foster spiritual growth. Paul, Silvanus, and Timothy not only held the believers of Thessalonica up in prayer but also instructed them on how to keep up their work of faith, labor of love, and steadfast hope. In concluding their letter, they mention three actions of support, "Rejoice always; pray without ceasing; in everything give thanks; for this is God's will for you in Christ Jesus" (1 Thes. 5:16-18).

God's will require our work of faith, labor of love, and steadfastness of hope in Jesus Christ. In order to accomplish these actions and continue on the pathway towards heaven without being derailed or knocked down; His will also requires that we be forever joyful in the Lord, constantly communicate with Him and listen for His direction, and endlessly thank Him no matter what kind of situation we may find ourselves in. These are the precious keys to successful Christian living that we all need to hold and use without hesitation in our services as believers of Christ.

신자들의 믿음의 역사가 그들의 삶의 열매들을 통하여 명백하게 드러났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역사 또한 우리의 생활을 통하여 인정되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믿음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하여 말하였던 두번째 특징은 그들의 사랑의 수고입니다. 그들이 단순히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고 사랑의 수고라고 언급한 것을 주의하십시오. 우리가 잘 알듯이 수고는 힘겹도록 일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특징은 매우 의미있는 것임이 명백합니다. 바울은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는 구리와 울리는 팽과리가 되고"(고전 13:1). 여러분이 세계 200여개의 다른 언어들을 구사할 수 있으며 천국의 언어를 말할 수 있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런 능력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의 음성은 단지 짜증나는 소리일 뿐입니다.

바울은 계속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고전 13:2). 이 말은 우리에게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단적으로 말해 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고전 13:3). 여러분! 우리의 삶에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더 이상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꼭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말이나 행함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신자들에 대하여 칭찬하고 있는 세번째 특징은 소망의 인내입니다. 인내는 변하지 않고 확고하며, 믿을 만하고 진실된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의 인내는 예수님과 영원토록 살 것에 대하여 소망하는 것입니다(살전 5:10). 바울은 소망의 인내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고후 5:17)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때문에 우리는 산 소망을 소유한 자로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자들은 산 소망의 개념을 이해하였기에 극심한 핍박을 견디어낼 수 있었습니다. 믿음의 역사를 행하는 자는 동시에 참된 산 소망을 갖고 있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늘 기억하여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세상은 소망이 없으며 소망에 대한 가능성도 전혀 갖지 못합니다. 믿음의 역사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을 통하여 우리는 놀라운 영생의 은혜에 관하여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제와 오늘뿐 아니라 항상 동일하시기에 우리는 마지막 때까지 소망 가운데 견디고 인내하면서 지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들의 중요한 사역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해 주는 세 사람을 가졌던 복된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복을 보며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의 감사와 격려는 데살로니가 신자들의 영적 성장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신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었을 뿐 아니라 그들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교훈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편지를 맺으면서 세 가지로 이에 대하여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살전 5:16-18).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역사하고, 사랑으로 수고하며, 소망으로 인내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가 탈선하거나 넘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영원토록 기뻐하며, 계속해서 주님과 교통하면서 그분의 인도하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은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 끊임없이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야말로 우리들로 하여금 살면서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게 하는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열매들이 될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

한 군수

(목사, 대학부, 16교구, 출판국 지도)

사도 바울은 현 시대를 아직 옛 시대가 끝나지 않은 중간시대로 보았습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육을 물리쳐야 할 상태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옛 시대와의 단절이 십자가로 완성되었지만, 우리가 사는 영역은 여전히 옛 시대에 속해 있으므로 육의 유혹을 물리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마귀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영역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다운 생활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옮겨진 영역은 '고정된 영역(static realm)'이 아니라 매우 '역동적인 영역(dynamic realm)'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이 다해 주셨으니 나는 반응으로 감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성령 속에서 적극적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렇게 사는 것이 가능하게 하시는 '능력의 영역(power of realm)'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윤리는 "내가 한다",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 속에서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성령의 도움 속에서 인간의 결단이 필요함을 의미하며, 이것이 곧 하나님의 능력(성령)에 근거한 믿음으로 사는 생활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선언되어 있습니다(갈 2:20; Indicative). 이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이제 자신이 주체적으로 자신의 옛사람(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박아야 합니다. 따라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박은 채로 사는 것은 곧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하며, 여기서 성령으로 사는 것은 곧 성령의 능력의 영역 안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통치영역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며,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성령을 좇는 자는 실제로 율법을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을 좇아 행하면 육을 이길 수 있고, 도덕적 방향까지도 성령께서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에는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갈 5:22). 성령을 따르면 율법 아래가 아닌, 은총 아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죄가 주관치 못하는 영역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은 주관적이지 않습니다. 여기에도 율법처럼 규범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구약에는 이스라엘을 열매 맺는 백성으로 기대했었지만,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구약 이스라엘이 하지 못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 성령입니다. 성령의 열매들은 율법의 본질과 일치합니다. 즉 율법의 본질을 완성하는 것입니다(롬 8:5).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는 곧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요, 온 율법은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갈 5:14).

율법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여(갈 5:13) 이루어나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율법관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어는 율법을 이룬다(πλερω)는 단어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는 성령의 삶 속에서만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성령의 열매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 표지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성령의 역사하심은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방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생명 속에서 자라야 하며 신자의 경우 그것은 성령의 생명입니다(갈 5:25). 우리는 일을 생각할 때, 수고, 노력, 고생 등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열매를 생각할 때 아름다움, 평온함, 생명의 진전 등을 생각합니다. 육신은 죽은 행실을 만들어내지만(히 9:14), 성령은 살아 있는 열매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열매는 그 안에 훨씬 더 많은 열매를 위한 씨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열매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맺어졌거나, 또는 칭찬을 받고 과시하기 위해서 열린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사랑과 화평과 화평과 다른 모든 성령의 열매들에 굶주려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열매들을 맺을 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소용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열매를 맺습니다. 이 열매의 비밀은 오직 성령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성령께서만이 우리로 하여금 육을 이기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능력을 제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 굴복하여 여러분 자신을 성령께 드려보십시오.

성령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수호하는 일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회심의 유일하고도 참된 증거는 신자의 삶에 나타나는 성령의 임재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성령은 잃어버린 죄인들에게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이십니다(요 16:7-11). 죄인은 성령을 거스릴 수도 있고(행 7:51), 성령께 굴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도 있습니다. 죄인이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그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나게 되며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요 3:1-8). 그는 또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가 됩니다(고전 12:12-14). 신자는 그가 어느날엔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함께 누릴 것이라는 보증으로 성령의 인침을 받습니다(엡 1:13-14).

또한 성령께서는 매일매일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하여 필요한 기쁨과 능력을 공급하십니다. 신자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이는 성령께 지배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적인 경험이며, 마치 신선한 샘에서 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요 7:37-39). 성령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 성령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충현동산 관리동 준공감사에배를 드리고

김여순

(장로, 충현동산 관리부장)



충현동산 관리동을 온 교우들의 기대와 관심으로 아름답고 편리하게 완공하여 지난 6월 12일 준공감사에배를 드린 것을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제 새로운 관리동을 통해서 서울에서 가까운 곳, 자연경관이 수려한 곳에 위치한 충현동산이 관리가 잘되어서 예수님 재림때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구원의 처소로 가꾸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충현의 온 성도들이 아름다운 주님의 동산을 위해서 협력하며 기도해야 할 것이다.

대략 충현동산에는 현재 1,303기의 분묘가 조성되어 있고 전체 수용범위는 4천기 이상으로 추정되며 현 수용량으로 본다면 앞으로 40년 이상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의 묘지정책이 10년 20년 후에는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미래의 청사진으로 50년 이상된 유골안치소를 건립한다면 예수님 재림때까지 소천한 충

현의 성도를 충현동산에 안장할 수 있을 것이다.

충현동산 관리규정을 기독교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본다. 장례때나 성묘할 때 동산을 찾는 분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찾아와야 할 것이다. 동산에서의 모든 예배가 조상숭배나 죽은 자

를 신성화하는 모습은 절대로 안된다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예배의 주인은 죽은 사람이 믿던 살아 계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충현동산을 주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으로 관리해 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몇 가지 주지할 사항이 있다. 1. 장례예식은 기독교식으로 거행한다. 2. 동산 정내에서는 음주, 흡연, 기타 부도덕한 행위는 일체 금한다. 3. 분묘 조성 방법은 충현동산 관리규정에 따라야 한다. 4. 동산정내에서는 관리사무실에서 공적으로 영수하는 금액 외에는 일체 금품 거래를 하지 않는다.

충현동산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관리동을 완공하기까지 정성을 기울여 수고한 경방건설을 비롯한 모든 업체와 기도와 물질로 협력해 주신 충현의 성도들께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도드린다.

* 부서 탐방 / 초등부 *

어린이들의 다양한 욕구충족 위한 교사들의 노력 돋보여

초등부(부장 이갑재 장로, 지도 한송일 전도사)는 초등학교 3, 4학년 아이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이 아이들은 '예수님을 잘 아는 어린이'라는 표어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엡 4:13)'라는 말씀을 가지고 올 한 해를 보내고 있다.

초등부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의 교육이나 활동들이 많다. 이것은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들을 발휘하게 한 것이다. 초등부 교사들은 모두 예배부, 전도부, 친교부, 봉사부, 율동부, 교육부 중 한 곳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래서 이들은 자기만 관리는 물론 각 부서에 따라 모여서 그 부서가 담당하고 있는 것들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기도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보다 나은 초등부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 활동 부서들 중에서 초등부만의 특색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시청각부이다. 이것은 어린이들의 다양한 해진 욕구를 다소 충족시켜 주어 교육의 효과를 얻으려는 것과 분반공부 주제에 대해 동기를 부여해 주어 열린 마음으로 분반공부에 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다. 이 부서는 소리 성경, VTR, 인형극, 단막극 등으로 나누어져서 매주마다 그날 배운 설교 말씀과 분반공부 때 배

운 내용을 각각 돌아가면서 공연을 한다고 한다. 소리 성경, 인형극, 단막극에는 아이들도 함께 참여해 공연을 한다. 공연을 할 때의 모든 언어는 성경 말씀 그대로 한다고 하니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지는 데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초등부 아이들이 설교 시간과 분반 공부 시간 그리고 이 시청각 교육으로 지금까지 배운 것은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이고 이제부터는 사무엘상을 같은 방법으로 배울 것이다.

초등부에서는 교사들의 재능을 발휘하고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컴퓨터가 있었으면 한다고 하고 기도 제목은 믿지 않은 친구들을 많이 전도하여 500명의 아이들이 초등부에 출석하게 되는 것이라 한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배우고 자라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갈 수 있도록 성도들의 기도와 관심을 부탁한다.

(글/박주영 기자 사진/이문구 기자)



취재수첩

소망부-성경퀴즈대회

지난 6월 22일(주일) 소망부에서는 친구와 성경 전체를 범위로 하여 성경 퀴즈대회가 열렸다. 사회자가 반을 지정하고 질문이 주어지면 그 반에 속해 있는 답을 아는 회원이 손을 들어 표시하여 맞추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다. 맞춘 사람에게는 표시가 된 종이를 주어 나중에 시상을 하였다.



▶ 유치부에서는 오늘 1, 2부예배시 어린이 초청전대회를 갖는다.

▶ 초등부에서는 오늘 어린이 초청 잔치를 실시한다. 이 잔치를 위해 등록은 되어 있으나 그동안 출석하지 않고 있는 '잃은 양 찾기'를 해왔으며, 학동, 논현, 역삼, 도성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학교 전도도 실시하였고, 태신자를 작성하여 교사들과 함께 기도하였다.

▶ 소년부에서는 오늘(6월 29일) 2학기 성경교사를 치른다. 범위는 14과-25과이다. 한편 오는 7월 16일과 17일 교회에서 열리는 여름성경학교를 위하여 오늘 1부예배 후 충현기도원에서 교사 준비기도회를 갖는다.

▶ 충현복지관에서는 중증정신지체 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휠체어 2대와 소형 차량 1대를 기증할 성도들을 찾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562-0548, 564-4885).

금주의 수련회 실시 부서

대학부는 6월 30일-7월 3일 충현기도원에서 실시하는데 강사는 한근수, 김동석, 김준수 목사(성덕중앙교회)이고, 주제는 '다른 복음은 없다'이다.

소망부는 7월 3, 4일 갈릴리움에서 이종대 목사, 이두란, 정복인 전도사를 강사로 실시한다. 주제는 '우리 속은 날로 새롭다'이다.

또 7월 3일에는 크로마하프, 핸드벨 연주대가 나사렛홀에서 '주께 찬양드리세'라는 주제 아래 박경한 목사, 강호원 선생을 강사로 수련회를 실시한다.

베드로5지회 야외예배 및 체육대회

베드로전도회 5지회(회장 안병만 집사)에서는 지난 6월 21일 오후 3시 30분 수도공고 운동장에 모여 야외예배를 드리고 가족체육대회를 가졌다.

정광욱 목사, 장영자 전도사와 회원 25명이 참가한 이날, 참가자들은 교회당이 아닌 장소에서 또 다른 감회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친교를 나눌 수 있었다.



▶ 경찰전도회는 올해로 설립 16주년을 맞는 경찰청교회의 설립기념예배를 지원하였다. 이 예배는 이갑재 장로의 기도가 있는 후 김희수 목사가 '교회의 부흥'이라는 설교를 전하고 여성중앙단의 찬양으로 은혜스럽게 드러졌다.



(글/박주영 기자, 사진/이은구 기자)

단기선교를 위한 물품 수집

1. 품목 /
 - ① 문구류
 - ② 의약품: 구충제, 비타민, 항생제, 해열진통제, 에비오제, 피부과 각종 연고
 - ③ 의류: 사계절 성인, 유아의류
 - ④ 여행용 대형 가방
 - ⑤ 기타 생활필수품
2. 접수 /
 - ① 기간: 7월 6일~7월 27일
 - ② 장소: 선교위원회 사무실 (선교관 406호)

제작사진첩을 만듭니다

교회에서는 설립 마흔다섯 돌이 되는 1998년에 새로운 제작사진첩을 펴내려고 합니다. 제작에서는 단정한 차림으로 제 날짜에 찍으셔서 보다 알찬 사진첩을 만들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 찍는 곳 / 홍보실(선교관 408호)
- 찍는 때 / 1997년 6월 22일~12월 31일
주일 오전 8시 30분~오후 4시 30분
수요일 낮 12시 30분~오후 7시
금요일 오후 6시~7시 30분
- 찍는 교구 / 1997년 6월 29일: 2교구
1997년 7월 6일: 3교구
- 찍을 사람 / 원로, 은퇴, 세무장로 / 교역자 / 은퇴집사, 안수집사 / 원로, 은퇴, 시무권사 / 담임 서리집사

주말마다 외국인 근로자 위한 프로그램 진행

피부색은 달라도 우리는 하나

구영자

(집사, 6교구, 선교위원회)

작년

6월 중순 선교연구원에서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강승삼 목사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풀이가 있

었습니다. 예루살렘은 같은 나라 안(한국)을 의미하고 유다는 외국에 사는 같은 민족(교포), 사마리아는 같은 문화권 이면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중국, 일본), 땅끝은 완전히 다른 언어와 다른 문화권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나는 그동안 막연히 온 세상을 지칭하는 것이라고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정확하게 나의 심비에 새겨졌습니다.

그런데 이사가 40장까지 통독하다가 웬지 모르게 중단했던 성경을 다시 보게 되었을 때 나의 눈과 마음은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땅끝에서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는 줄 처음으로 안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부부에게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감지했습니다. 나는 떨렸습니다. 그레! 몇달 전 충현기도원에서 만났던 스리랑카 형제 자매들이 땅끝에서 온 것이구나!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그들을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붙여 주신 것이구나! 깨닫는 순간 그것은 충격이었고 감사였으며 큰 기쁨이었습니다.

아지트를 처음 만나게 한 주님은 우리 부부를 교회밖에서 훈련시키셨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신 어느 목사님을 만나게 하였고 함께 이들의 거처인 광주에 일주일에 한번씩 일이 끝난 저녁에 찾아가서 찬양을 가르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예배의 시종을 함께할 때 우리는 피곤도 모르고 그렇게 기쁨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 오면 밤 12시가 다 되었지만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외롭고 쓸쓸하며 너무나 열악한 환경에서 힘든 일을 하고 있던 근로자들이었기에 우리의 작은 사랑과 따뜻한 배려와 위로의 말 한마디는 그들의 굳은 마음을 여는 천국 열쇠가 된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쏟아부어 주신 후 우리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제일 먼저 만났던 아지트가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자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모여 네게로 오느니라 네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네 딸들은 안기워 올 것이라"는 이사야 60장 4절의 말씀대로 광주에서 수주에서 동두천에서 스리랑카 형제 자매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렵게 되자 주님은 요요한 삼리로 이



들을 세가 족부로 인도하시어 많은 사랑을 받게 하시며 또한 한 글도 배울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영이 권이

면서도 영어도 잘 안 통하고 한국말도 안 통하던 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6개월이 지난 지금은 한글을 쓰고 읽으며 말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예배시간에 50-60%정도 알아듣고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이제는 선교위원회로 소속이 확정되어 또한 감사합니다. 이들에 대한 훈련이 선교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이루어져서 복음의 십자가 군병이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스리랑카뿐 아니라 몽고, 인도의 형제, 자매들도 보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노아의 방주가 되어 이들을 품에 품고 말씀을 가르쳐 그들의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확립되어 주님의 제자가 된다면 우리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의 이웃에 우리의 직장에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복음의 황금어장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노를 저어가 그들을 내릴 때 주님은 도와 주실 것입니다.

이 일에 봉사하시는 많은 손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 6시에 일어나 차량으로 봉사하시는 귀한 집사님들이 있습니다. 한글을 가르치는 학원전도회 회원들, 식사 준비로 봉사하시는 집사님들, 또한 스리랑카 성경을 구입할 때 도와 주셨던 목사님, 전도사님, 6교구 남부전도회 회원들, 물질로 봉사하시는 집사님들, 이들에게 제일 중요한 일터를 주신 장로님, 집사님들, 또 잊을 수 없는 것은 눈이 펄펄 쏟아지던 금년 1월 1일 설날에 많은 선물과 함께 심방해 주셨던 새가족부 목사님과 전도사님, 집사님들과 따뜻한 사랑으로 모든 일을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는 선교위원회의 모든 분들에게 이사가 60장 1-22절 말씀의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외국인 근로자 사역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선교위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선교관 406호, 교환 357).

▶ 주일 일정

- 2부예배 참석
- 한글교육: 오전 10:15~12:00
선교관 301호
- 점심식사: 12:00~12:40
메추라기홀

이와같은 일들을 위하여 차량 봉사, 한글 교육, 식사 봉사, 물질 및 기도 후원이 필요합니다.